

국내의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치수 154p, 중고선가치수 183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치수는 154p(+0p, WoW), 중고선가치수는 183p(+0p, WoW)를 기록함. 지난해, 삼성중공업이 174,000CBM급 LNG운반선 총 4척을 수주함. 인도시점은 2척은 2024년 4분기-2025년 1분기 사이, 1척은 2025년 1분기, 나머지 1척은 2025년 2분기임. (Clarksons)

EU 불허하나...현대중공업 · 대우조선 합병 '빨간불'

현대중공업이 LNG선 시장 독점해소방안을 마련하라는 EU 경쟁당국 요구에 불응하며 EU는 합병 불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EU는 명목상으로는 LNG선 독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합병을 통해 유럽선사가 지출해야하는 선박 매입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임. (한국경제)

탱커 시장 2023년에나 희망

현재 탱커시장에서 2022년도 어려워보임. Non-eco, non-scrubber선들이 다수 남아있어, VLCC 50%이상의 수입이 운영비를 밑돌 전망임. 노후선 해체량이 늘어나야 2023년 시장도 개선됨. (선박뉴스)

LPG선이 모자랄 수도

LPG선 공급이 타이트해지며 용선주들이 정기 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계절적으로 운임이 오를 시기가 아님에도 9월말부터 운임이 상승함. 겨울철에는 화물 증가에 따라 운임이 더 오를 것임. (선박뉴스)

US on pace to surpass Australia and Qatar in LNG export capacity by end of 2022: EIA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2022년말 미국이 전세계 LNG 최대 수출 능력을 가질 것으로 보도됨. 2020년 기준 LNG 최대 수출국은 호주, 카타르, 미국 순이었음. 2022년 미국 수출능력은 11.4bfcdr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Upstream)

Petrobras tenders for rig duo for Mero pre-salt field

브라질 Petrobras의 산토스 유전분지 시추설비 2척 용선 입찰이 시작됨. 2022년 1월 21일까지 입찰임. 기존 Transocean 드릴십 2척을 대체할 것으로 보도됨. (Upstream)